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4 면에서 계속

총대를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의 제1선을 지켜선 인민군대의 청년군인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육탄용사들로 억세게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는 선군시대 청년교양의 숭고한 귀감으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만드는것을 청년교양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청년동맹조직들이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교양을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운동사적관전성을 직접 밝히하시고 사적관을 백두산결세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이 절대성되어있는 사상교양의 훌륭한 거점으로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으며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곳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우리 당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제2차 전국청년미종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사령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청년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높이 내세워주시며 훌륭한 청년들을 키운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감사문까지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서 청년들을 고상한 미덕과 미용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한 궁정창조의 열정이 온 나라에 더욱 새차게 타나나고 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당의 부름에 돌볼을 가리지 않는 높은 혁명성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고상한 도덕적품모를 지닌 주체위업제승자들의 대우를 기워넣는것은 위대한 당의 청년중시정치야말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다.

성과는 다음으로 청년들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하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도록 한것이다.

청년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조국도민에 청년동맹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지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를 세우는데서 청년전위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돌뚝이아 온 나라가 돌뚝이라고 하시며 청년동맹에 골격골격인 대상들을 맡겨주시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가 되어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청년동맹에 통제로 맡겨주시었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부의 핫이어서 청년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해 남짓한 기간에 무려 4차례나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결연결을 이끌어주시었으며 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우리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으로 명명해주시고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더불어 우리 청년동맹은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당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선진과 애국충정의 성벽으로 더욱 억척같이 다져졌으며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백두청춘으로 굳지 않을 불리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의 대우대가 자라났다.

중요한 성과는 다음으로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든든히 준비시켜준것이다.

한평생 새 세대들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끝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 참가자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면서 우리 학생소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었으며 소년단원들을 김정일장군님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소년혁명가, 지덕체를 겸비한 당의 소년군위대로 키울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년단은 청년동맹의 교대자이며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청년동맹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전담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선군조선의 새 세대로 든든히 준비시켜나가도록 따돌이 이끌어주시었다.

혁명의 미래를 가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대같은 후대사랑은 조국의 운명이 판가리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나날에 중단없이 울려 퍼진 벼슬의 종소리에도, 만경대혁명학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무봉고급중학교와 영웅강계장사상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학교와 과외교양기지를, 즐거운 야영경에도 령력히 새겨져있다.

어머이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소년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조선소년단장령전을 해마다 국가적행사로 크게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정으로 울퉁히 꾸러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청소년과외교양기지들과 온 나라 그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메아리이다.

청년동맹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소년단에 대한 지도를 중요한 임무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소년지침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줄 아는 열렬한 소년혁명가들로 자라나도록 하였다.

보고자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시고 청년동맹과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막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주체적 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뜻을 이으시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최정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오늘 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앞에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익축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은 청년동맹의 기본사명이다.

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전위부대로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인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대상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경사보위하여야 한다.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수령경사옹위에 조국과 혁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견결한결의의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제철

기어 무한한 계급의 전위부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도덕교양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청년들이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집단과 통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회공중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폐절을 잘 지키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풍모를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청년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고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교양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적 용의분모로 당이 준 명령을 거어이 관철하는 선군시대 청년혁명가들로 든든히 준비시켜야 한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이 단숨에 산악도 뚫고고 날바다도 배무며 시대를 뒤쫓는 백두청춘의 영웅적기상과 투쟁분대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의 문패를 청년들이 남기지 말게 하려는 당의 믿음에 거어이 보답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자강역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동력, 총매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청담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전면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청년학생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든든히 준비시켜 청년과학기술행군과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새차게 나래치게 하는데서 청년들이 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면으로 계속

